

기독교 교리

제1강 서론과 종교(질문과 해설)

1. 교리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필요성

- 1) 탈 교리 시대 : 감정으로/ 프로그램/ 도덕으로(행위)
- 2) 어렵다고 안 배우는 시대 : 딱딱하다. 은혜가 안 된다.
- 3) 이단에 대한 예방
- 4) 바른 교회를 위한 건전한 기초 확립.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 교리 공부의 유익이 무엇인가

- 1) 성경을 이해. 전체적으로. 알차게.
- 2) 신앙고백을 바로 함.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교인.
- 3) 기독교 윤리와 실천을 확고하게 함.

3. 교리의 체계

- 1) 순서 : 서론(성경론)/ 신론/인간론/기독교론/구원론/교회론/종말론
- 2) 성경강해는 성경을 순서대로 나열하나, 교리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술한다.

4. 왜 사람들은 종교를 갖는가.

- 1) 종교의 씨를 갖고 있다.
- 2)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 3) 바른 종교를 갖는가. 이것이 문제이다.
- 4)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상숭배나 나쁜 종교를 가지면 심판을 받거나 손해를 본다.
- 5) 종교는 생각과 행동과 사회까지 영향을 미친다.

5. 참된 종교란 무엇인가(내용)

- 1)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의 지식으로 구성된다.
- 2)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알고 인간의 무기력과 무가치를 아는 것이다.
- 3)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관계이다. 예배와 봉사로 표현된다.
- 4) 예배와 봉사는 인간의 맘대ろ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

6. 역사적으로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 1) 구약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신약에서는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 2) 중세에는 외형주의로 흘렀고, 종교개혁시대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회복했으나 근세에는 주관주의로 흐르기도 했다. 현대에는 세속주의 인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7. 종교의 자리는 어디인가

- 1) 지식 : 주지주의. 철학과 이성애 빠진다.
- 2) 감정 : 주관주의나 체험주의에 빠진다.
- 3) 의지 : 도덕적 활동이나 행동주의에 빠진다. 도덕과 신앙이 뒤 바뀐다.
- 4) 마음 :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마음이다.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인격이다.

8. 종교의 기원은 어디인가

- 1) 역사적 방법 : 역사적으로 발전했다.
- 2) 심리적 방법 : 심리에서 기인한다.
- 3) 신학적 방법 :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종교를 가질 수 있다.

제2장 계시와 성경(질문과 해설)

1. 계시의존 사상

- 1)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셨기에 종교가 가능하다. 인간이 더듬어 찾는 것이 아니다.
- 2)계시를 믿지 않는 자(무신론자, 불가지론자)
- 3)계시를 인정하나 체계적인 계시를 부인하는 자(범신론자, 신인합일)
- 4)일반계시는 인정하나 특별계시는 부인하는 자(이신론자).
- 5)이성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 의존해야 한다.
- 6)칼빈 : 말씀이 가는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춘다. 박윤선 박사 이야기.

2. 일반계시

- 1)말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나 인간의 생각과 역사의 경험을 통해 나타낸다.
- 2)가치 : 일반종교에 남아 있는 선함이나 죄인임에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
- 3)불충분함 :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다.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지 못한다.

3. 특별계시

- 1)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재해석하고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
- 2)수단 : 신의 현현. 직접교통. 기적. 병 고침과 자연계의 기적. 성육신.
- 3)성격 : 구원계시이다. 점진적이고 분명하다. 신약에서 충만과 아름다움이 빛난다.

4. 성경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특별계시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5. 어떻게 영감되었는가(영감의 성격)

- 1)기계적 영감 : 저자가 아니라 저작물에만 영감되었다.
- 2)역동적 영감 : 저작물이 아니라 저자에만 영감되었다.
- 3)유기적인 영감 : 저자와 저작물 다 영감되었다. 성령이 저자의 재능과 교육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인간적인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6. 어디까지 영감 되었는가

- 1)부분적인 영감 : 구약의 영감은 부인하고 신약만 믿거나, 사상만 영감되었거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가르침만 영감 되었다고 함.
- 2)전체 영감 : 사상 영감이 아니라 축자영감이다. 기계적인 영감과 다르다.

7. 성경에 대한 개혁교회와 천주교의 차이(성경의 완전성)

- 1)성경의 권위 : 천주교는 교회가 성경에 권위를 부여하나, 개혁교회는 성경 자체가 권위를 갖는다.
- 2)성경의 필요성 : 개혁교회는 성경이 은혜의 수단으로 필요하나 천주교는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재세례파는 내적조명을 더 필요로 한다.
- 3)성경의 명확성 : 교회나 사제를 통하지 않고(천주교) 성경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다.
- 4)성경의 충분성 : 교회의 전통(천주교)이나 내적조명(재세례파)이 필요하지 않고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제3장 하나님의 본성(nature)과 이름과 속성(질문과 해설)

1.하나님에 대한 지식

종교, 계시, 성경론에 이어서 신지식을 논하고, 인간의 지식 등으로 계속 진행한다.

2.하나님에 대한 지식

- 1)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계시로 일부 알 수 있다.
- 2)선천적인 지식 :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전시킬 수 있다.
- 3)후천적인 지식 :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

3.하나님의 본성

- 1)하나님은 영(pure spirit)이시다 : 제2계명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했다.
- 2)하나님은 인격(personal)이시다 : 단순한 힘이나 비인격의 영향력이 아니다.
지적, 도덕적, 합리적, 자기결정력을 가진 분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
- 3)하나님은 완전하신(infinitely perfect) 분이다 : 완전성에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다.
제한과 불완전에서 자유하다.
- 4)하나님은 한 분(one)이시다 : 존재나 속성에서 하나이다. 단순하다(simplicity).
하나님은 진리, 빛, 사랑, 의이시다.

4.하나님의 이름들

▶ 구약

- 1)엘, 엘로힘(El.Elohim) :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다. 경외해야 할 분(창1:1).
- 2)엘리온(Elyon) : 지극히 높으신 분.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 3)아도나이(Adonai) : 주(Lord). 모든 인생의 통치자요 소유자(시86:8).
- 4)샤다이(Shaddai, El-Shaddai) : 위대하시나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출6:3).
- 5)여호와(Jehovah/Yahweh) :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출3:14).” 언약의 관계에서 불변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 신약

- 1)데오스(Theos) : 일반적으로 하나님(God)으로 표현된다. 나의, 우리 하나님.
- 2)큐리오스(Kurios) : 구약의 아도나이와 여호와에 해당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이시고 지배자이시다(계4:8)
- 3)아버지(Pater) : 하나님과 신자 개인에 적용되는 단어. 때로는 창조자와 성부를 표현하는 말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6:9)

5.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의 속성/Incommuicable Attributes>

- 1)자존성(Independence or self-existence):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 2)불변성(Immutability): 하나님의 존재와 완전성은 불변한다.
온다, 간다, 숨는다, 드러낸다. 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활동을 표시하는 것이다.
- 3)무한성(infinity/ no limitation)
*존재 : 완전하다. 지식이나 선과 사랑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완전하다.

*시간 : 영원성(eternity).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이다.

*장소 : 편재성(immensity). 어느 곳이나 계시는 하나님.

4)단순성(simplicity) :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은 하나이다. 진리, 빛, 생명

<공유속성>: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하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불완전 하나 하나님은 완전하다.

1)지식 :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스스로 모든 것을 아신다.

2)지혜 :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3)선함(goodness) : 모든 피조물을 친절하고 넉넉하게 다루는 것을 말한다.

4)사랑 : 때로는 모든 것보다 뛰어난 것으로 다룬다.

*은혜(grace) : 죄를 용서하는 조건 없는 사랑이다(엡1:7).

*자비(mercy)와 긍휼(compassion) : 죄의 결과로 오는 비참함에서 구하는 것이다(엡2:4)

*오래 참으심과 인내(longsuffering) : 경고를 받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는 것

5)거룩하심 :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고 그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이사야의 영적 체험(사6:5).

6)의(義) :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는 완전함이다. 도덕적인 통치를 유지하며 정당한 법을 강화한다.

상을 주는 공의(사랑)와 벌을 주는 공의(진노)가 있다.

7)진실성(veracity) : 하나님은 계시와 언약에서 신실하시다.

8)주권(Sovereignty) :

*주권적 뜻(Sovereignty will) :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드러난 뜻 : 성경을 통해서(복음과 율법으로) 계시된 것이다.

*감추인 뜻 :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고 감추어져서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다.

*죄를 범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50:20).

*주권적 능력(Sovereignty power) :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는 능력을 전능이라 한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거짓말과 죄와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다.

제4강 삼위일체(The Trinity)와 신적작정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본성과 이름과 속성에 대해 공부했다.

In the unity of the Godhead there be three persons, of one substance, power, and eternity :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Ghost. The Father is of none, neither begotten nor proceeding : the Son is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the Holy Ghost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단일한 신성에 삼위가 계시니 곧 그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 속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나시지 아니했으며 나오시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시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1.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는가?

- 1)하나님은 한 분이시다(One) : 본질과 능력과 영광과 영원성이 같다.
- 2)하나님은 삼위(three Persons)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 3)세분이 아니다(three individuals)
- 4)삼위는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보낸다.
- 5)각 위는 모든 신적 본질을 소유한다(the whole of the divine essence).
- 6)삼위의 존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순서이나, 누가 누구에게 종속적이지 않다.

2. 성경적인 근거

- 1)구약: *우리가(복수/창1:2) *여호와와 사자(창16:7-13) *성령의 인격(사48:16/63:10)
- 2)신약: 구속사의 발전을 따라 성부가 성자를 보내고, 성자는 성령을 보낸다(마28:19/ 고후13:13)

3. 삼위일체에 대한 부정

- 1)소시니안(종교개혁 당시)/ 유니테리안/ 현대주의자들
- 2)그들이 말하는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과 인간 예수 그리고 단지 신적인 영향력이나 힘인 성령을 말한다.
- 3)단일신론 : 양태론적 단일신론과 역동적 단일신론
- 4)삼신론
- 5)잘못된 비유들(양태론적) : 물과 얼음과 수증기/ 집사와 과장과 아버지

4. 성부 하나님

- 1)일반적으로 창조주, 이스라엘의 아버지, 믿는 자의 아버지를 의미하나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아버지이다.
- 2)영원부터 아들을 낳으시는 분(He generates the Son from all eternity).
- 3)구속, 창조와 섭리를 계획하시는 분(planning).
- 4)구속에서 삼위일체를 대표하시는 분.

5. 성자 예수 그리스도

- 1)영원히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시2:7요1:14).
- 2)중보의 사역(works of mediation):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6. 성령

- 1)단지 힘이나 하나의 영향력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 2)인격(요14:16;15:26)과 지성(요14:26)과 감정(엡4:30)과 의지(행16:7; 고후12:11)를 가진 분이다. 성령은 말씀하시고, 찾으시고, 증거하시고, 명령하시고, 드러내신다.
- 3)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는 분이다.
- 4)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실행에 옮긴다(창1:3; 누1:35; 요3:34; 엡2:22)..

7. 신적 작정이란 무엇인가?

- 1) 하나님이 장치 이루실 영원한 목적이나 계획
- 2) 여러가지로 보이거나(decrees) 실상은 하나의 작정이다.
- 3)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동과 악한 행동까지도 포함한다.
- 4)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허용적인 작정이다(permissive decree).

8. 작정의 성격

- 1) 지혜(엡3:9-11) :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 2) 영원성(엡3:11): 3) 효과적이다(사46:10) : 작정된 것은 다 이루어진다.
- 4) 불변한다(욥23:13,14/사46:10) :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 5) 무조건적이다(행2:23/엡2:8) :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좌우되지 않는다.
- 6) 전포괄적이다(창50:20/시39:4): 선한 행동은 물론이고 악한 행동도 다 포함한다
- 7) 허용적이다: 죄에 관해서.

9. 작정 교리를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

- 1) 인간의 도덕적 자유와 상반된다(창50:19-20; 행2:23).
- 2) 구원을 갈망하지 않게 만든다(우리는 하나님 작정의 최종 결과나 과정을 모른다).
- 3)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든다(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고 죄의 문체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10. 예정과 일반적인 작정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 1) 예정은 도덕적인 피조물에 관계된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이다.
- 2) 사람(선인/악인), 천사와 마귀, 중보자 그리스도가 포함된다.
- 3) 예정에는 유기와 선택이 있다.

11. 선택이란 무엇인가?

- 1)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신4:37; 7:6-8) 2) 특별한 사명이나 직분(삼상10:24; 시78:70)
- 3) 개개의 구원(마22:14; 롬11:5) :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위해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에 관한 영원한 목적.

12. 유기란 무엇인가?

- 1) 소극적으로(passive): 은혜의 은총을 받는데서 지나친다(마11:25; 롬9:13)
- 2) 적극적으로: 죄를 벌한다.

13. 예정론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

- 1) 왜 누구는 구원시키고 누구는 유기하는가?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불의하다가 할 수 있으나 사실은 반대이다(마20:14; 롬9:14-15)
- 2) 예정을 알아서 구원받는가? 아니다. 구원받은 후에 예정된 것을 믿는다.
예정론은 결정론적 일원론(決定論의一元論)이 아니다.
- 3) 예정론의 위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구원론의 마지막에 있다. 그리고 교회론이 온다.
예정론이 신론이나 서론에 있지 않는다.
- 4) 예정론의 실제적인 교훈 : 구원을 확신시키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도록 한다.

제5강 창조와 섭리

1. 창조

- 1)하나님의 작정은 다음 단계로 창조를 생각하게 된다.
- 2)창조는 모든 계시의 시작과 기초이며, 모든 신앙생활에 기초이다.
- 3)재료가 없이 창조된 것과 재료를 사용하여 창조한 것이 있다.
- 4)창조 시기 : 태초에
(창1:1에서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며, 요1장에서 태초는 영원을 말한다. 창조 이전에 영원이 있었다).
- 5)우리는 범신론을 반대한다. 창조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 6)우리는 이신론을 반대한다. 창조 이후에도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한다.

2.창조의 목적

- 1)사람의 행복: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있다.
- 2)하나님께 영광 : 억지나 생색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의 복리를 증진시킴으로 자연스럽게 영광을 받는다.

3.창조에 대한 3가지 반대

- 1)물질은 영원하다: 우연이나 보다 고차원적으로 강권하는 힘에 의해서 생긴다.
*비평: 영원한 것이 둘 일 수는 없다. 영원과 다른 영원이 함께 할 수 없다.
- 2)유출설: 하나님과 세상은 하나(같다)이다. 세상은 신성의 필연적인 유출로 생긴 것이다
*비평: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결정력과 인격과 의지를 빼앗을 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나 도덕성 그리고 책임성을 손상시킨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악을 책임져야 한다.
- 3)진화론: 하나의 가설이다. 우리는 대진화를 반대한다(소진화 인정).

4.영적 세계 창조에 대해

- 1)자유주의 신학은 영적인 존재를 부인한다.
- 2)천사는 순수한 영적 존재이다. 때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지만 영적인 존재이다.
- 3)거룩하고 선하고 선택받은 천사이다.
- 4)타락한 천사들이 있다(요8:44/ 뱀후2:4/유다서6).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의 권위에 도전하였다.
이들은 본래 자기 자리를 이탈하였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사탄이다. 사단은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 하며 불신자들이 그들의 길을 계속 고집하도록 인도한다.

5.천사의 종류

- 1)종류
*그룹: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드러낸다(에덴동산을 지키며 성막이나 성소 안에 있다(창3:24)).
*스랍: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찬양하며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수행한다.
- 2)이름
*가브리엘: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에게 전달하고 해석한다(눅1:19,26).
*미가엘: 악한 영이나 원수들과 싸우는 전사이다(단10:13;계12:7)
*기타의 이름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엡1:21).”

6.천사들이 하는 일

- 1)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한다.
- 2)죄악이 들어 온 이후에는 구원받을 자를 섬긴다(죄인의 회개/믿는 자를 보호/교회에 함께 하심)
- 3)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한다.
- 4)하나님의 특별계시를 전달한다.
- 5)원수에게 심판을 행한다.
- 6)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전한다.
- 7)악한 천사들 :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한다.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자리를 이탈한 자들이다. 사단은 그들의 우두머리이다. 택한 자라도 타락시키려 하고, 죄인이 죄의 길을 가도록 자극한다.

제6장 원래 상태의 인간과 죄의 상태의 인간

*하나님에 대해 알면 인간을 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작품 중에 면류관이다.

1. 인간의 구성 요소

1)영과 육(이분설)

2)영과 육과 혼(삼분설)

3)영과 혼은 교차적으로 사용(계9:6 히12:23/ 창35:18 행7:59)

*영(spirit) : 육체를 다스리고 조절하는 생명(life)과 행동(action)의 원리이다.

*혼(soul) :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는 인격의 주체이다.

2.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1)선재설: 영혼이 선재하다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인간으로 태어났다

2)유전설(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루터교의 견해

근거: 히 7:9, 창46:26(조상의 허리에서 나오고)/하와의 영혼 창조를 말하지 않는다.

비평: 부모를 영혼의 창조자로 만든다/ 예수님의 무죄가 깨어진다.

3)창조설 : 개혁주의 입장

진술: 영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이다. 그러나 태어나기 전부터 타락했다. 영과 육이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다(전12:7/히12:9).

장점: 예수님의 무죄를 뒷받침 한다. 영혼의 성격과 조화를 이룬다.

비평: 가족의 유사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기 쉽다.

3. 하나님의 형상

1)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창1:26). 형상과 모양은 같은 말이다.

2)로마교의 견해:

*형상(image): 일반적인 은사(영성이나, 자유의지 혹은 불멸성)

*모양(likeness): 형상에 덧붙인 초자연적인 은사(원래의 의 original righteousness).

3)루터교의 견해: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지식과 거룩이다. 매우 좁은 범위로 이해한다.

4)개혁파: 자연적 형상과 도덕적 형상을 구분한다.

*자연적인 형상(natural image of God) : 도덕적인 형상 보다 광범위 하다. 영적, 이성적, 도덕적 존재이다. 죄로 인해 흐려졌으나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다.

*도덕적인 형상(moral image of God) : 보다 좁은 범위의 것이다.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다. 이것은 죄로 인해 잃었다가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되었다. 인간은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창9:6/고전11:7)

4. 행위 언약

1)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처음 언약을 행위언약이라고 한다.

2)행위 언약의 근거: 롬5:12-21(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칭)/ 호6:7(아담의 죄)

3)행위언약의 요소:

*당사자 : 하나님과 아담/그러나 동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심.

*언약 : 생명과 사망(순종의 여부에 따라)

*조건 : 절대적인 순종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벌 : 영과 육 그리고 영원한 죽음. 영과 육의 분리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분리

*선악과는 단지 성례에 지니지 않는다 : 실제적인 효력이 아니라 상징이다.

*지금도 유효하다: 알미니안주의는 행위언약이 폐기되었다고 하나 그렇지 않다.

*행위언약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타락 후에는 역사하는 힘이 없다.

5. 죄의 기원에 대해서(원죄)

1)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범죄 함으로 죄가 들어 왔다.

2)뱀(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의 씨를 넣어서 시작되었다.

3)뱀은 단지 사탄의 도구였다(요8:44, 롬16:20, 계12:9).

6.원죄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1)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조건 없이 순종하지 못했다.

2)지적(불신과 교만), 의지적(하나님과 같이 되려함), 감정적(거룩치 못한 만족함)인 죄.

3)결과: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창 3:19, 롬5:12,6:23).

7.죄의 속성(The Nature of Sin)

1)죄(sin)와 악(evil)은 구분해야 한다.

2)죄는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잘못이라는 견해는 옳지 않다.

3)성경적 죄란 불법(lawlessness)을 말한다(요일3:4).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반대되는 것을 말한다.

4)타락한 성품과 도덕적인 오염 :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다. 그래서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롬14:4/레17:9/사6:5/롬8:5-8).

5)죄가 자리하는 곳은 마음이다. 마음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의 중심이다.

6)카톨릭과 차이 : 카톨릭은 외적인 행위를 말하나 우리는 내적인 죄까지 말한다.

8.아담의 죄가 어떻게 인류에게 연관되는가?

1)실제적인 이론 : 아담의 죄와 오염을 모든 인류가 실제로 나눠 가진다.

2)대표의 원리: 아담은 언약의 대표로 죄를 지었다. 죄가 후손에게 전가된다.

3)직접적으로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죄를 지음으로 비로소 전달된다.

9.원죄

1)원죄: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2)죄가 오염 된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죄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운다.

3)전적인 타락(totally depraved): 인간의 극한 악을 말하기 보다는 모든 부분이 타락했다

4)선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5)알미니안주의,현대주의자,펠라기안주의자는 원죄를 부인한다.

10.실제적인 죄

1)단지 외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적으로 나오는 모든 것을 말한다.

2)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그것은 성령을 훼방하는 죄이다.

11.죄의 보편성

1)펠라기안주의는 죄의 보편성을 부인한다. 단지 환경이나 교육 탓이라 한다.

2)성경은 어린아이도 태어날 때부터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요3:3,5/ 엡2:3). 따라서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아야 한다.

제7장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은혜의 언약(the covenant of Grace)과 구속의 언약(the covenant of Redemption)을 구분한다. 구속의 언약은 은혜 언약의 기초이다.

1.구속의 언약(The Covenant of Redemption)

- 1)당사자는 성부와 성자이다.
- 2)성부는 삼위 하나님을 대표한다. 성자는 택한 받은 사람을 대표한다.
- 3)성경의 근거: 엡1:4/3:11/딤후1:9/요5:30,43/6:38-40/롬5:12-21/고전15:22
- 4)구속 언약에서의 성자:
 - *언약의 머리(Head)이다.
 - *구속의 확실성을 보장한다. 왜냐하면 죄인이 받을 의무를 다했기 때문이다.
 - *율법의 책임을 다했다. 마지막 아담이다. 살리는 영이다.
 -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다. 그러나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는 은혜 언약을 위한 기초이다.
 - *효력은 제한된 소수에게 있다. 택함 받은 자만이 구속의 은혜를 누린다.
- 5)구속 언약의 요구와 약속
 -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Require)
 - *성부는 아들에게 육신으로 태어날 것을 요구(죄 없음)
 - *율법의 형벌을 받게 했다(시40:8/요10:11/갈1:4)
 -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따라 나타나며, 그 결과 하나님께 헌신하여 산다.
 -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Promise)
 - *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사42:1/61:1).
 - *아들의 사역을 돕는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다.
 - *교회를 건설할 성령을 주신다.
 - *택한 자를 인도하고 보호하게 한다.

2.은혜의 언약: 구속의 언약을 토대로 세워진 언약이다.

- 1)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죄인이다.
 - *목적(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 :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에게 온갖 구원의 축복을 다 베푸는 것이다. 그리고 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린다. 오직 택함 받은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
 - *목적에 이르는 수단 : 믿은 자에게만(믿는 자와 그의 자녀들) 주시는 법적 언약..
- 2)약속
 - *나는 너와 네 자손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 *일시적인 축복과 칭의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최후의 영화로운 생명.
- 3)언약의 요구
 -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공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잘 순종함으로 그의 약속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 믿음의 언약과 언약의 삶을 받아들이라는 것과 둘째,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이다.
- 4)언약의 특성
 - *은혜로운 언약 :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롭다.
 - *영원하다 : 인간이 언약을 깨더라도 영원하고 깰 수 없는 언약.
 - *특수하다(particular) : 보편적이거나(universal) 택함 받은 누리는 언약이다.
 - *단일성 : 본질적인 언약은 하나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언약은 같다. 복음도(갈3:8), 믿음도(갈3:6-7), 중보자도(히13:8) 하나이다(롬4:11).

*조건적이다 :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존하며 믿어야 한다.

*무조건적이다 : 인간의 어떤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 : 하나님이 제시한 언약이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의 요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행위언약과 다른 것은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점이다.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데,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고, 율법을 완성함으로 평화를 회복한다.

5) 언약에 누가 가입하는가?

*성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믿는 즉시 언약 백성이 된다,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린다.

*어린이는 태어날 때 언약의 백성이 된다. 그러나 언약의 혜택을 즉시로 누리거나, 그것을 의식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는 성장하면서 자발적으로 언약의 신앙을 고백한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언약을 깨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물론 세례를 받고 언약의 일반적인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일시적인 역사를 맞볼 수도 있다.

6) 언약의 다양성

*원시언약 : 창3:15절

*노아의 언약 : 일반은총을 다루는 언약이다(자연언약). 자연적이고 일시적인 축복을 다룬 언약이지만 은혜언약을 이루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아브라함과 언약 : 믿음의 언약이고, 할례로 표시된다(창15:6).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으나 국가적인 범위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적 언약이다.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다른 언약 곧, 행위언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율법은 죄를 더하여서 마침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 유월절이 또 하나의 성례로 주어졌다(출24:6-8).

*새 언약 : 구약의 다른 언약과 같다. 유대주의의 특수주의를 극복한다. 복음의 축복이 모든 백성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다. 보다 넘치는(fuller), 보다 영적인(spiritual) 언약이다. 세례와 성찬이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을 대신한다(신약, 롬31:31, 히8:8,13)

제8장 그리스도의 성품과 신분

1. 그리스도의 이름

- 1) 예수 : 히브리어 여호수아(Joshua)에서 온 말이다. 구원하다는(To save) 뜻이다. 신약에는 마1:21절에 나온다.
- 2) 그리스도 :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Messiah) 「기름부음받은 자」라는 뜻이다. 구약시대에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부음 받았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예수도 성령의 기름부음 받았다.
- 3) 인자(Son of Man) : 단7:13절에서 유래한다. 특히 예수의 인성을 말하나 장차 영광과 위엄으로 구름타고 오실 모습을 말할 때 사용한다.
- 4)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 : 성부와 구별되는 성자로서의 아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메시아임을 말할 때 사용한다.
- 5) 주(Lord) : 당시 예수님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교회의 “주인이고 통치자(Owner and Ruler)”임을 의미한다.

2. 그리스도의 성품(The Nature of Christ)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갖고 있다.

1) 그리스도는 신성 곧 하나님이다(성경의 증거).

*신성의 증거 : 사9:6; 미가5:2; 말3:1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인성의 증거 : 요8:40; 행2:22; 롬5:15; 고전15:21 마26:26

2) 동시에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을 갖는다(perfect humanity)/성경의 증거).

영혼과 육체/ 인간의 성장과정/인간의 필요와 고난

3) 그러나 죄가 없다.

*인간이라야 우리를 대신할 수 있다. 고난 받고 죽는다.

*죄 없는 인간이라야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할 수 있다.

*하나님이라야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으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다.

3. 인성과 신성의 통일(Unity of Person in Christ)

1) 그리스도는 인성을 갖는다.

이 말은 그가 인간이라는 말이 아니다(Christ has a human nature, but He is not a human person).

2) 신인(God-Man) 신성과 인성의 필수적인 모든 자질을 갖춘다(의지와 의식 등)

4. 몇 가지 오해

*신성을 부인한 오류: 초대교회의 에비온/종교개혁 시대의 소시니안/ 오늘날의 유니테리안과 현대주의자들/아리우스(demi-God).

*인성을 부인한 자들: 초대교회의 가현설자들/아폴리나리스

*네스토리우스 : 신성과 인성의 통일을 이해 못함.

*유티커스: 인성과 신성의 구별을 하지 못했다. 사람이다가 신이다가!

▶ 그리스도의 신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을 말하는 것은 그가 율법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율법 아래 있

는 비하와 율법의 모든 것을 만족시킨 존귀의 신분으로 나누어 말한다.

1. 비하의 상태

- 1) 그리스도는 주권적인 통치자이다. 그러나 율법의 수여자(Lawgiver)로서 영광스런 위치를 버리고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요구에 순응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되었다.
- 2)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 :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 성령으로 잉태하여(죄가 없이) 사람으로 태어났다.
- 3) 그리스도의 수난 : 그리스도의 수난은 마지막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전 생애를 다 말한다. 육체 보다 영혼의 고난을 말한다(사53:3). 사단의 시험과 대적자들의 핍박과 자기 백성들의 반역으로 수난을 당했다.
- 4) 그리스도의 죽음 : 자연사(自然死)나 암살로 죽지 않고, 로마 법정의 사형선고를 받아 죽었다. 이는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임을 말한다.
- 5) 예수의 장례 : 죽음이 예수 수난의 끝이 아니다. 「다 이루었다(It is finished)」는 것은 능동적인 고난의 마지막이고 장례까지도 당하여야 했다. 흠으로 돌아가는 것은 낮아짐의 극치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준다.
- 6) 음부로 내려감 : 성경 벰전3:18-19이나 벰전4:4-6절을 근거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 *로마교: 림보(연옥)으로 갔다고 한다. 그곳에는 구약의 성도들이 있는 곳이다.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 *루터교: 죽음과 부활 사이에 지옥에 가서, 그곳에 있는 자들과 사단에게 음부의 세력을 이겼다고 선포했다고 한다.
 - *우리의 해석 : 예수님은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다만 예수님의 육신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음의 깊은 곳을 경험했으며, 겿세마네 동산이나 골고다 십자가에서 영혼이 죽음의 고통을 맞보았음을 의미한다.

2. 존귀한 상태

- 1) 부활 :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인성의 아름다움이나 능력이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이 육과 영으로 다시 산 것과는 다르다. 나사로나 수벰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산 것과는 다르다.
 - 예수 부활의 의미**
 -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가 이루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 *우리의 칭의와 마지막 부활을 확증한 것이다.
 - 2) 승천 :
 - *부활하여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그리스도의 인성의 영광을 의미한다.
 - *루터교 : 인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한 그리스도의 편재를 의미한다.
 -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곳에서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
 - 3) 중보의 사역 :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은 영광과 권능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교회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중보 기도한다.
 - 4) 육체적인 재림 : 그리스도의 존귀함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실 때 절정을 이룬다.

- *육체적이고 가건적이다.
- *세상을 심판하고 택한 백성의 구원을 완성한다.
- *재림의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 *구속사역의 완전한 승리를 말한다

제9장 그리스도의 직무와 속죄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

1. 선지자직

- 1) 구약은 그리스도가 장차 선지자로 오신다고 한다(신18:15; 행3:23).
- 2) 선지자란 무엇인가? 꿈, 환상 그리고 언어로 된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하되 말이나 혹은 가건적인 선지자적 행위로 전달하는 사람이다.
- 3) 그리스도는 사역을 과거(벧전1:11; 3:18-20)와 현재(지상사역) 그리고 미래(사도에게 성령을 보내서 혹은 지금도 교회의 말씀 사역을 통해)에 걸쳐 포괄적이다.
- 4) 율법이 갖는 도덕적 영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2. 제사장직

- 1) 구약은 오실 구속자의 제사장 직무를 묘사한다(시110:4; 사53)
- 2)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 :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대표한다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하고 둘 다 가르치지만 제사장은 의식을, 선지자는 율법을 가르치는 점에서 다르다.
- 3) 하는 일 : 하나님 앞에 백성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데, 제물을 드려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중보기도 한다.
- 4)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었다(요한은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부른다).
- 5)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 보혜사이다. 중보기도로 국한되지 않고, 예를 들면 영적 축복을 보장하고, 사단과 율법, 양심과 죄사함에 대한 참소를 물리친다. 성령을 통해 예배와 봉사를 거룩케 한다.

3. 왕직 :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우주적인 통치권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한다. 교회에 대한 영적인 왕권과 우주에 대한 왕권으로 나눈다.

<영적 왕권>

- 1)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권이다. 이것은 영적이다. 먼저 영역에서 마음과 삶을 관계하니 영적이고, 관점에서 죄인을 구원하니 영적이고, 수단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니 영적이다. 주로 교회를 모으고 통치하고 보호하고 완전케 함으로 실천된다.
- 2) 왕권의 영역 :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으로 확장하여 생각할 수 있다. 좁게는 택함 받은 자와 불가건적인 교회만이 천국시민이나 넓게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의 사람들, 가건적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 3)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신자의 마음과 삶에 임하나 재림 때까지 실현되지 않는 미래성이 있다. 미래에는 마음만이 아니라 가건적이고 완전하게 임할 것이다. 재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다.

<우주적 왕권>

- 1)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마28:18).
- 2) 하나님의 아들로써 본래적으로 갖는 왕권과 달리 중보자로 주어진 왕권이다.
- 3) 그리스도는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온 세상의 삶을 통제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에 복종케 하고, 교회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 4) 이 왕권은 재림 때까지 지속되고, 종말이 임하면 아버지께 되돌린다(고전15:24-28).

4. 왜 속죄가 필요한가?

- 1) 그리스도는 죄인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리스도가 속죄하고, 그 결과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한다. 이런 견해는 비성경적이다.
- 2)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속죄가 필요하다 : 하나님은 사랑과 의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나 의를 요구하시므로 속죄가 필요하다(갈1:19-20/사53:10)

5. 속죄의 성격?

- 1) 하나님과 화해로서 속죄 : 누구를 만족케 하기 위한 속죄인가?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인을 감동시켜 변화를 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속죄는 죄인을 위한 것이 된다. 죄로 인한 문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먼저 만족시켜야 한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가 먼저이다.
- 2) 대속의 속죄 :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우리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그에게 죄와 율법의 요구를 대신 감당함으로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
- 3)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 : 능동적인 순종(율법을 지킴)이라 함은 그리스도가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죄인이 지켜야 할 율법을 다 지킨 것을 말한다. 그리고 수동적인 순종(고난을 받음)은 죄인인 우리가 받을 율법에 대한 대가를 그가 대신 담당할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순종은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함께 한다.

6. 속죄의 범위

- 1) 보편적이다: 루터파,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로마천주교는 보편속죄를 믿는다. 그들이 말하는 보편속죄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죽었다고 한다. 속죄의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지만, 구원의 실체가 아닌 구원의 가능성을 이루었다고 한다. 속죄로 인한 구원의 효력은 당사자의 믿느냐 아니 믿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
- 2) 개혁파의 견해: 그리스도의 속죄는 보편적이 아니라 제한적이라고 믿는다. 모두가 아니라 택한 자만을 위한 속죄였다. 그리고 그 효력도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취된다고 믿는다. 그리스도가 온 세상이나 모든 사람을 위해 속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택한 자가 모든 나라, 모든 종족 중에 있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뜻은 아니다.

제10장 일반은총과 소명과 중생

1. 일반은총(성령의 일반적인 역사) : 구속의 역사를 적용하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Special operation of the Holy Spirit).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자.

2. 일반은혜의 성격

- 1) 근본적인 중생의 역사는 없다 : 단지 죄를 억제하고 사회의 일반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인 의를 증진시킨다. 그러나 이것도 대단한 은혜이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 2)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다. 특별은혜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
- 3) 알미니안의 견해 : 일반은혜로도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 일반은혜를 지나치게 높이고 의존한다.
- 4) 개혁파의 견해 :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삶의 외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 곧 중생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여전히 특별은혜가 필요하다.
- 5) 그리스도의 속죄와 일반은혜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간접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것이 아니다

3. 일반은혜의 수단

- 1) 일반 계시의 빛이다. 주로 양심을 인도한다.
- 2) 시민 정부 : 의와 공의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 3) 시민 여론 :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룬다. 여론이 대단히 성경적일 때가 있다. 대개의 신문사설을 보라. 성경적인 교훈을 주는 경우가 많다.
- 4) 상과 벌: 상을 격려하고 벌은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4. 일반은혜의 효력

- 1) 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한다. 당장 죽여도 가하나 그것을 연기한다. 악인이 사는 것을 보라!
- 2) 죄를 억제한다(창20:6). 개인과 국가적으로. 일반은혜가 큰 국가는 상당히 문화수준이 높고 선진 국가를 이루고 있다. 선진 기독교 국가는 대개 이렇다.
- 3) 진리, 선, 도덕성, 양심, 그리고 종교성을 나타낸다.
- 4)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다. 외관상으로는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물론 영적인 가치는 없는 것이다.
- 5)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한다. 추수감사절은 신자만의 것은 아닌데 모든 좋은 것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이 현실이다.
*시145:9;15-16 *마5:44-45 *행14:16-17

5. 소명의 정의 :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죄인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다.

6. 외적 소명 : 마28:19;22:14;눅14:16-24 행13:46 등등

- 1) 복음을 제시한다.
- 2)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초청한다.
- 3) 죄사함과 구원을 약속한다.
*조건적이다
*보편적이다 : 제한이 없다. 심지어는 유기된 자도 포함한다.
*택자의 구원(롬10:14-17) 그리고 유기된 자에게는 핑계할 것이 없음(요5:39;롬3:5,6,19)을 나타낸다.

7. 내적 소명 : 참된 부름이다. 외적인 부름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만든다.

- 1)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죄인들에게 적용된다.(고전1:23-24).
- 2) 능력 있는 부름이다(행13:48;고전1:23-24). 구원에 이르는 효력을 나타낸다.

3) 목적을 갖는 부름이다 :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고전1:9), 축복(벧전3:9)과 평화(고전7:15)와 거룩함(살전 4:7)과 소망(엡4:4)과 영생(딤후6:12)에 이르는 부름이다.

8. 중생(Regeneration)

1) 성격:

* 넓은 범위로 회심까지 포함한다. 크게 변화된 삶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좁은 의미로 새 생명의 원리가 사람에게 심어지고(the new life is implanted in man), 영혼을 거룩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다.

* 한 순간에 이루어진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화와 다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단번에 옮겨진다(요일 3:14).

* 비밀스럽고 사람이 직접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사람은 그 효력에 의해 알게 된다.

2) 누가 중생케 하는가?

*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1:13; 행16:14; 요3:5). 알미니안주의자들과 달리 우리는 인간의 협력이 필요 없는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이다.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새 생명을 넣는 성령의 역사이다.

* 창조적인 역사이다. 복음의 말씀이 도구로 잘 사용되지 않는다. 말씀이 사용된다는 것은 넓은 의미의 중생을 말할 때이다(벧전1:23).

3) 중생은 꼭 필요한가? (요3:3,7; 고전2:14; 갈6:15)

* 중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다.”

4) 중생의 시기: 성인의 경우는 외적 소명 보다는 후에 그러나 내적 소명 보다는 빠르다(행16:14절).

제11장 회심과 칭의와 성화와 성도의 견인(구원의 서정 계속)

회심(회개와 믿음)

1. 일반적인 회심

- 1) 중생한 사람에게 의식적인 생활에서 회개와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다.
- 2) 하나님은 회심의 주체이나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 3)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적 역사이나 회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협력한다.
- 4) 회심은 성화와 달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중생과 달리 의식한다.
- 5) 성경의 예 : 나아만(왕하5:15), 므낫세(대하33:12), 삭개오(눅19:8-9), 고넬료(행10:44), 바울(행9:5), 루디아(행16:14) 등등
- 6) 국가적인 회심(욘3:10)도 있고, 일시적인 회심(마13:20-21; 히6:4-6)도 있다.

2. 회개(회심의 부정적인 요소)

- 1) 과거를 돌아보아, 죄에서 돌이켜 의식적인 변화를 말한다.
- 2) 지적, 정적,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
- 3) 로마교: 회개의 외부적인 것을 많이 강조한다. 신부에게 고해성사하고 금식이나 순례 등의 고행으로 회개한다. 그러나 성경은 회개는 내적인 것이라고 한다.

3. 믿음(회심의 긍정적인 요소)

- 1) 회개가 과거를 보는 것이라면 믿음은 앞을 보는 것이다.
- 2) 여러 종류의 믿음
 - *역사적인 믿음: 단지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 고고학자도 이런 믿음을 갖는다(행26:27,28)
 - *일시적인 믿음: 일시적으로 감동받는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마13:2,21)
 - *이적을 믿음: 구원에 이를 수도 있으나, 무당이나 마술사도 갖는 믿음(마17:20/행14:9,10).
 - *구원에 이르는 믿음: 성령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확신 곧,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다(요6:40).
- 3) 믿음의 요소
 - *지적인 요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진리와 사실을 안다.
 - *정적인 요소: 동의한다. 진리는 영혼을 사로잡는다.
 - *의지적인 요소: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한다. 구원의 언약을 실천한다.
- 4) 믿음의 확신
 - *알미니안(감리교)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나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 *개혁파: 그 사람의 상태가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나 궁극적인 구원을 믿는다. 기도와 묵상으로, 참된 신자의 삶으로 확신을 개발해야 한다.

칭의

1. 칭의

- 1)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이다.
- 2) 상태가 아니라 위치(지위)를 말한다. 성화와 다르다.
- 3) 사람의 밖, 곧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며, 죄책을 제거하는 단회적인 행위이다. 반면 성화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며,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일생 동안 계속되는 과정이다.

2. 칭의의 요소

- 1)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죄의 용서(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포함한다)이다. 죄의식은 남기 때문에 죄사함의 확인이 필요하다(마6:12/ 요일1:9/시25:7).
- 2) 양자 :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한다(롬8:17; 벰전1:4). 자녀의 모든 권리와 상속권을 준다. 법적인 아들 됨과 중생과 성화를 통해 얻는 윤리적인 아들 됨은 다르다.

3. 칭의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 1) 시간 전 영원부터의 칭의인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영원 전부터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칭의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칭의를 말하는 것이다.

- 2)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인가? 이것은 칭의의 객관적 근거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칭의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적용의 칭의를 말한다.
- 3) 믿음으로 의롭다함 :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루어진다(롬3:24; 고후5:21; 빌3:19).
 - * 로마교: 상속받은 원의(original Righteousness)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한다.
 - * 알미니안: 자신의 믿음을 근거로 칭의를 받는다고 한다.
- 4) 칭의 교리에 대한 반대
 - *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가로 받는 것이기에 은혜가 아니라 공로에 근거한 것이다..
 - *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한다.
 - * 일상의 도덕적인 생활을 게으르게 만든다고 한다.

성화의 성도의 견인

1. 성화의 성격

- 1) 성화는 은혜롭고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로 죄인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 2) 칭의와 달리 법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의 내적 삶에서 이루어지며, 오랜 기간을 통해 이어지며, 이 세상에서는 결코 완전한 성화는 되지 않는다. 성도의 협력이 필요하다. 유혹이나 시험에 들지 말도록 경고하는 근거이다(고전6:9; 롬12:9,16; 갈5:16-23).
- 3) 성화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증진시킨다.
- 4) 죄를 깨끗케 하는 것과,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는 면에서 성화가 이루어진다.

2. 성화의 불완전

- 1) 세상에서 성화는 완전할 수 없다. 성도라 할지라도 영과 육은 계속적으로 갈등하며(롬7:14; 요9:3), 여전히 죄를 고백한다(시51:1). 더욱 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롬7:7-26).
- 2) 완전성화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요이 죄가 없다 하거나 죄 아래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요일1:8).

3. 성화와 선행

- 1) 선행은 성화의 열매이다
- 2)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온 선행이다.
- 3) 하나님의 드러낸 뜻과 일치한다.
- 4)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 5) 일반은혜로 인한 선행은 외적으로만 율법과 일치하며 결국 율법에 순종하지 않음.
- 4) 로마교는 선행을 구원받는데 필요한 공로로 생각하고, 반 율법주의자는 선행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4. 성도의 견인

- 1) 신자들의 구원을 계속 보존하여 완전케 이르게 하는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이다.
- 2)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다. 성경이 배교라든지 타락을 말하는 것(히2:1; 10:26)은 경고이지 구원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3)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역사이도 노력해야 하는(골1:23; 히3:14) 하나님의 역사이다.

제12장 교회의 성격과 행정

1.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말은 '불러내다(To Call out)는 뜻이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 받은 회중을 의미한다.

1)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여러 가지

*지역교회/가정교회/지상이나 천상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의 회중

2.교회의 본질

1)로마교 : 외부적이고 가견적인 조직을 중시한다(사제/주교/대주교/추기경/교황).

2)개혁교회 : 영적이고 불가견적인 교회를 강조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다. 따라서 불신자는 들어올 수 없다.

3.교회의 여러 가지 구분

1)*전투적인 교회 : 지상의 교회/거룩한 영적전쟁에 참여한다.

*승리적인 교회 : 천상의 교회/승리의 찬송만 있다.

2)*불가견적인 교회 :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는 누가 여기에 속했는지 잘 모른다.

*가견적인 교회 : 불가견적인 교회는 신자의 신앙고백과 행위로 가견적인 교회가 된다. 가견적인 교회는 말씀과 성례, 외적인 조직과 행정에서 나타난다.

3)*유기적인 교회 : 신자들의 공동체적 삶(불신자와 구별됨)

*조직적인 교회 : 직분과 말씀과 성례를 시행함과 교회행정

4.교회의 특성(주로 불가견적인 교회에 대한 것이다)

1)단일성: *엡4:4-6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조직적인 면에서 세계적으로 단일하다(로마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개혁파)

2)거룩함: *벧전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도덕, 교리, 예배, 징계에서 거룩하다(로마교).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원리적으로 새 생명을 소유했다(개혁파).

3)보편성(Catholicity): *시2:8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세계적인 분포와 교인 수에 있어서 보편적이다(로마교).

*불가견적 교회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개혁파).

5.교회의 표지(Marks of the Church)

1)가견적인 교회에 대한 논의이다.

2)목적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3)말씀의 바른 선포: 말씀을 완전하고 정확무오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충실해야 함을 의미하다. 말씀이 신앙과 삶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4)성례의 바른 시행: 로마교처럼 성례가 말씀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성례는 신자들과 그 자녀에게 정당한 사역자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5)권징의 충실한 시행: 이것은 교리의 순결과 성례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6.교회 행정과 권세

1)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모든 권세의 원천이다(엡1:20-23).

2)그리스도는 힘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린다.

3)따라서 교회의 직원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옷 입고,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7.교회의 직원

1)비상직원

*열두 사도와 바울이 비상직원이다. 이들은 예수님에 의해 직접 부름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친히 목격하였다. 여러 기적을 행하였으며 사역의 열매가 풍성했다.

*선지자 : 권면의 말씀과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었다(행11:28; 엡4:11).

*전도자 : 사도를 도우며 일했던 사람들이다(행21:8; 엡4:11).

2)일상적인 직원

*장로와 감독 : 장로(elder)는 나이 개념을 강조하고 감독(bishop)은 감독자의 기능을 강조한다. 그러나 별개가 아닌 같은 직분이다. 장로가 반드시 교사는 아니었다. 후에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구분된다.

*집사 :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초대교회는 집사를 두었다(행6:1-6).

8.교회 회의

1)당회(Consistory) 노회(Classis) 대회(Synod) 총회가 있다.

2)지역교회의 행정 : 대의적인(Representative) 성격을 띤다.. 사역자와 교인이 뽑은 장로가 당회를 구성한다. 장로가 교인들에 의해 뽑히지만 권세는 교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지역교회는 완전한 교회이다. 그러나 전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

3)상회와 연합이 필요한 것은 교회의 공동의 유익과 단일성을 갖기 위함이다.

9.교회의 권세

1)교회의 권세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짐으로 영적인 것이다(행20:28;요20:22-23).

2)오직 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고전5:12-13).

3)영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는 것이다(고후10:4).

4)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시행된다.

5)교리와 가르치는 권세 : 교회는 마땅히 진리를 보호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신앙을 유지 발전시키고 미래의 사역자들을 가르쳐야 한다(딤후1:3;딤후4:13;딤후2:2).

6)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적당하고 질서 있게 시행되기를 원한다(고전14:33,40). 여기에 권징의 시행이 포함된다(마16:19;요20:23;고전5:2) 권징은 교인의 여부와 영적인 성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마18:15-18).

7)자비를 베푸는 권세 : 초대교회는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마10:1,8;고전12:9;막14:7;행4:34;행6:1-6). 사도 시대 이후에는 치료는 거의 사라지고 구제만 남았다.

제13장 은혜의 수단(성령에 대해서)

1.하나님의 말씀

1)개혁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나 로마교는 성례를 우선한다.

2)말씀과 성령 : 여기서 말씀은 성경, 특히 선포되어진 말씀인 설교를 의미한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담화나 종교적 문학으로도 말씀이 전달될 수 있다.

3)효력은 단지 성령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말씀만으로는 믿음이나 회개를 일으킬 수 없다.

4)율법과 복음(은혜의 수단으로 두 가지 말씀)

*율법은 죄 아래로 가둔다. 그러나 한편 신자다운 삶을 가르친다.

*복음은 죄인을 불러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한다. 그리고 구원을 믿는 자에게 현재와 미래의 모든 축복을 약속한다.

2.성례

1)성례는 말씀에 의존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2)로마교는 성례 자체로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다.

3)말씀과 성례의 비교

말씀	성례
절대필요 믿음을 갖게 하고 강하게 함 모든 사람을 위해 선포	2차적 믿음을 강하게 단지 신자만을 위하여

4)성례의 구성

*외적이고 가견적인 표 : 물(세례)이나 떡과 포도주(성찬)

*내면적인 영적 은혜 :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를 사함 받음.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부활과 연합한다. 따라서 성례는 외적인 표와 내적 의미가 함께 하도록 믿음으로 받아야 효력이 있다.

5)성례의 수

구약: 할례(아브라함)와 유월절(모세).

└ *양자의 차이는 피가 없다는

신약: 세례와 성찬

└ 것이다. 그리스도의 완전속

죄 때문이다.

로마교의 7성례는 비성경적이다(견진 confirmation/고해 penance/서품 orders/혼배 matrimony/종부성사 extreme unction)

3.세례

1)부활하신 주님의 지상명령(마28:19)이다.

2)세례를 합법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정당한 사역자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한다.

3)로마교는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생각한다. 위급할 때에 산파도 할 수 있다.

4.세례의 양식(Mode of Baptism)

1)침례교: 침례만이 유일하게 정당한 세례이다. 세례를 은혜의 상태로 본다(롬6:3-6/골2:12). 따라서 재침례가 가능하다.

2)개혁파: 침례뿐 아니라, 물을 뿌리거나(sprinkling) 붓는(pouring) 것도 합당한 양식이다(레14:7/민8:7/히9:19-22). 세례는 물로 씻어 깨끗케 함을(purification) 의미한다. 세례를 상태가 아닌 양식으로 본다. 따라서 재침례는 있을 수 없다.

3)뱃티조(baptizo): 침례만이 아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5.누가 세례를 받는가?

1)성인 : 때 공적인 신앙고백을 해야 한다. 그것을 근거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인다.

2)유아세례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침례교는 유아세례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성경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그러나 개혁파는 유아세례를 지지한다. 이유는 "구약의 할례에는 어린이도 참여했다. 따라서 언약신학의 줄거리에서 볼 때에 당연히 유아세례를 베푼다(롬4:16-18/롬4:13-18/갈3:15-18).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 해당한다. 할례를 통해 보듯이 유아도 세례를 통해 언약 백성의 회중에 들어온다.

3)유아세례의 근거(개혁파) : 중생했을 것을 근거로(믿음으로)한다는 견해와 언약의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할 때 유아세례를 준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후자가 더 옳다. 언약 때문에 유아세례가 가능하다. 문제는 유아세례의 효력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이다.

4)유아세례의 효력: 언약을 잘 이해할 때 그 효력이 나타난다.

6.성찬을 세우심

- 1) 성찬은 주님이 죽기 전에 유월절에 세워졌다(마26:26-29/막14:22-25/눅22:19,22).
- 2)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 성찬은 구속의 은혜를 기억케 하고 또한 그것을 강화시킨다.

7. 성찬의 상징(Sign)과 약속(Seal)

- 1) 상징 :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며,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며, 또한 주님의 구주되심과 왕 되심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 2) 인치심(약속): 복음과 언약이 약속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다. 성찬을 받는 자들은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자들이며, 구원의 모든 축복을 실제로 누릴 것이다.

8. 성찬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임재 하는가?

- 1) 로마교: 화체설(피와 살이 실제 주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
*반론: 예수님은 “이것이 내 피와 살이다”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는가? 또한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다. 육체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 2) 루터교: 공재설(화체설은 믿을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안에(in), 밑에(under), 옆에(along) 함께(with) 하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편재하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디서나 있다는 것이다. 로마교의 영향을 다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정 범위에 임한다
- 3) 쾰링글리: 그리스도는 성찬에 영적으로 함께 한다. 성찬은 단지 상징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케 하고 단지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중심적이다.
- 4) 칼빈: 영적 임재를 말한다. 이것은 쾰링글리의 것과 같으나 차이가 있다. 성찬의 상징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치심(약속)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영적으로,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한다. 성령중심 하나님의 언약 중심이다.

9.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 1) 신자만 한다.
- 2) 유아 세례자는 아니다. 왜? 은혜의 수단으로 복음을 이해해야 한다.
- 3) 신자는 자신을 살피야 한다. 믿음으로 참여해야 은혜를 받는다.
- 4) 말씀의 은혜와 성찬의 은혜가 다른가? 같다. 성찬은 말씀의 효력을 더 강하게 한다. 말씀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수단으로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 유아세례를 준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후자가 더 옳다. 언약 때문에 유아세례가 가능하다. 문제는 유아세례의 효력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이다.

4) 유아세례의 효력: 언약을 잘 이해할 때 그 효력이 나타난다.

6. 성찬을 세우심

1) 성찬은 주님이 죽기 전에 유월절에 세워졌다(마26:26-29/막14:22-25/눅22:19,22).

2)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 성찬은 구속의 은혜를 기억케 하고 또한 그것을 강화시킨다.

7. 성찬의 상징(Sign)과 약속(Seal)

1) 상징 : 성찬은 주님의 죽음을 상징하며,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며, 또한 주님의 구속과 왕 되심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2) 인치심(약속): 복음과 언약이 약속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다. 성찬을 받는 자들은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자들이며, 구원의 모든 축복을 실제로 누릴 것이다.

8. 성찬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임재 하는가?

1) 로마교: 화체설(피와 살이 실제 주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

*반론: 예수님은 “이것이 내 피와 살이다”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는가? 또한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다. 육체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2) 루터교: 공체설(화체설은 믿을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안에(in), 밑에(under), 옆에(along) 함께(with) 하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편재하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디서나 있다는 것이다. 로마교의 영향을 다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정 범위에 임한다

3) 쾰링겐: 그리스도는 성찬에 영적으로 함께 한다. 성찬은 단지 상징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케 하고 단지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중심적이다.

4) 칼빈: 영적 임재를 말한다. 이것은 쾰링겐의 것과 같으나 차이가 있다. 성찬의 상징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치심(약속)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영적으로,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한다. 성령중심 하나님의 언약 중심이다.

9.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1) 신자만 한다.

2) 유아 세례자는 아니다. 왜? 은혜의 수단으로 복음을 이해해야 한다.

3) 신자는 자신을 살펴야 한다. 믿음으로 참여해야 은혜를 받는다.

4) 말씀의 은혜와 성찬의 은혜가 다른가? 같다. 성찬은 말씀의 효력을 더 강하게 한다. 말씀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수단으로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4장 은혜의 수단(성례에 대해서)

1.하나님의 말씀

- 1)개혁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나 로마교는 성례를 우선한다.
- 2)말씀과 성령 : 여기서 말씀은 성경, 특히 선포되어진 말씀인 설교를 의미한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담화나 종교적 문학으로도 말씀이 전달될 수 있다.
- 3)효력은 단지 성령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말씀만으로는 믿음이나 회개를 일으킬 수 없다.
- 4)율법과 복음(은혜의 수단으로 두 가지 말씀)
 - *율법은 죄 아래로 가둔다. 그러나 한편 신자다운 삶을 가르친다.
 - *복음은 죄인을 불러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한다. 그리고 구원을 믿는 자에게 현재와 미래의 모든 축복을 약속한다.

2.성례

- 1)성례는 말씀에 의존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 2)로마교는 성례 자체로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다.
- 3)말씀과 성례의 비교

말씀	성례
절대필요 믿음을 갖게 하고 강하게 함 모든 사람을 위해 선포	2차적 믿음을 강하게 단지 신자만을 위하여

4)성례의 구성

- *외적이고 가건적인 표 : 물(세례)이나 떡과 포도주(성찬)
- *내면적인 영적 은혜 :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를 사함 받음.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부활과 연합한다. 따라서 성례는 외적인 표와 내적 의미가 함께 하도록 믿음으로 받아야 효력이 있다.

5)성례의 수

- 구약: 할례(아브라함)와 유월절(모세). ┌ *양자의 차이는 피가 없다는
- 신약: 세례와 성찬 └ 것이다. 그리스도의 완전속죄 때문이다.
- 로마교의 7성례는 비성경적이다
- (건진 confirmation/고해 penance/서품 orders/혼배 matrimony/종부성사 extreme unction)

3.세례

- 1)부활하신 주님의 지상명령(마28:19)이다.
- 2)세례를 합법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정당한 사역자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한다.
- 3)로마교는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생각한다. 위급할 때에 산파도 할 수 있다.

4.세례의 양식(Mode of Baptism)

- 1)침례교: 침례만이 유일하게 정당한 세례이다. 세례를 은혜의 상태로 본다(롬6:3-6/골2:12). 따라서 재침례가 가능하다.
- 2)개혁파: 침례뿐 아니라, 물을 뿌리거나(sprinkling) 붓는(pouring) 것도 합당한 양식이다(레14:7/민8:7/히9:19-22). 세례는 물로 씻어 깨끗케 함을(purification) 의미한다. 세례를 상태가 아닌 양식으로 본다. 따라서 재침례는 있을 수 없다.
- 3)바티조(baptizo): 침례만이 아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5.누가 세례를 받는가?

- 1)성인 : 때 공적인 신앙고백을 해야 한다. 그것을 근거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인다.
- 2)유아세례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 침례교는 유아세례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성경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 그러나 개혁파는 유아세례를 지지한다. 이유는 “구약의 할례에는 어린이도 참여했다. 따라서 언약신학의 줄거리에서 볼 때에 당연히 유아세례를 베풀다(롬4:16-18/롬4:13-18/갈3:15-18).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

해당한다. 할례를 통해 보듯이 유아도 세례를 통해 언약 백성의 회중에 들어온다.

3)유아세례의 근거(개혁파) : 중생했을 것을 근거로(믿음으로)한다는 견해와 언약의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할 때 유아세례를 준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후자가 더 옳다. 언약 때문에 유아세례가 가능하다. 문제는 유아세례의 효력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이다.

4)유아세례의 효력: 언약을 잘 이해할 때 그 효력이 나타난다.

6.성찬을 세우심

1)성찬은 주님이 죽기 전에 유월절에 세워졌다(마26:26-29/막14:22-25/눅22:19,22).

2)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 성찬은 구속의 은혜를 기억케 하고 또한 그것을 강화시킨다.

7.성찬의 상징(Sign)과 약속(Seal)

1)상징 :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며,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며, 또한 주님의 구주되심과 왕 되심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2)인치심(약속): 복음과 언약이 약속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다. 성찬을 받는 자들은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자들이며, 구원의 모든 축복을 실제로 누릴 것이다.

8.성찬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임재 하는가?

1)로마교: 화체설(피와 살이 실제 주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

*반론: 예수님은 “이것이 내 피와 살이다”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는가? 또한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다. 육체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2)루터교: 공체설(화체설은 믿을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안에(in),밑에(under),옆에(along) 함께(with) 하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편재하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디서나 있다는 것이다. 로마교의 영향을 다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정 범위에 임한다

3)쯔빙글리: 그리스도는 성찬에 영적으로 함께 한다. 성찬은 단지 상징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케 하고 단지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중심적이다.

4)칼빈: 영적 임재를 말한다. 이것은 쯔빙글리의 것과 같으나 차이가 있다. 성찬의 상징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치심(약속)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영적으로,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한다. 성령중심 하나님의 언약 중심이다.

9.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1)신자만 한다.

2)유아 세례자는 아니다. 왜? 은혜의 수단으로 복음을 이해해야 한다.

3)신자는 자신을 살펴야 한다. 믿음으로 참여해야 은혜를 받는다.

4)말씀의 은혜와 성찬의 은혜가 다른가? 같다. 성찬은 말씀의 효력을 더 강하게 한다. 말씀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수단으로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5장 육체의 죽음과 중간기 상태와 그리스도의 재림

1. 마지막 일

- 1) 종말론과 내세론
- 2) 죽음과 중간기 상태와 재림과 천년왕국과 부활과 마지막 심판과 최후의 상태

2. 육체의 죽음

- 1) 육체의 죽음은 멸절이 아니라 영과 육의 분리로 인한 육체적 생명의 끝이다.
- 2)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고 저주이다.
- 3) 신자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신자에게 죽음은 단순한 별이 아닌 성화의 한 과정으로 중요하다. 죽음으로 죄를 완전히 정복하게 된다.

3. 중간기 상태

- 1) 음부(sheol-hades)에 대한 현대적 이해 :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어서 가는 곳이다. 구약에서는 스올로 신약에서는 음부(hades)로 표현한다. 음부는 형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단지 세상에서 살던 희미한 기억을 가지며, 삶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잃는다고 한다. 그러나 눅16:23절에 음부는 적극적인 고통을 받는 곳이다. 성경은 음부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때로는 무덤으로(창42:38; 시16:10), 때로는 죽음의 상태로(삼상2:6; 시89:48), 때로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신32:22; 시9:17)로 표현한다.
- 2) 연옥, 선조림보, 유아림보 : 로마교에 의하면 완전한 영혼은 죽은 즉시 천국으로 들어가나 대부분의 완전하지 못한 신자들은 소위 연옥이라는 정화하는 곳에 들어간다. 연옥에 거하는 기간은 개인에 따라 다른데, 후손들이나 친구들에 의해 줄어들 수 있다. 선조 림보는 구약의 성도들, 유아 림보는 세례 받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가는 곳이다. 적극적인 형벌은 면제되고 천국의 축복도 없는 곳이다.
- 3) 영혼의 수면 : 죽으면 무의식의 수면에 들어간다. 죽음을 잠으로 말하는 성경 구절을 근거하여 죽음을 무의식의 잠으로 이해한다(마8:24; 행7:60). 그러나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는 것은 비유일 뿐이다. 신자의 영혼은 의식 활동을 한다(눅16:19-31; 고후5:8; 빌1:23).
- 4) 멸절설, 조건부 영생설 :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죽음 후에 멸절된다. 다만 신자는 그리스도로 인해 불멸의 선물을 받는다고 한다(요10:27; 롬2:7). 그러나 성경은 악한 자의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고 한다(눅12:47-48; 롬2:12)
- 5) 두 번의 기회 : 죽은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다시 얻는다고 한다.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엡4:8-9; 빌2:9-11; 벰전3:19/4:6). 그러나 성경은 불신자의 운명은 죽은 즉시 영원히 고정된다고 한다(눅16:19-31; 요8:21-24; 벰후2:4). 이들에 대한 심판의 근거는 이 세상에서 행한 것에 근거한다(마7:22; 고후5:9)

4. 재림의 징조들

- 1) 성경의 증거 : 마24:30; 25:19; 26:64; 요14:3; 행1:11; 빌3:20; 살전4:15; 살후1:7; 딤후2:13
- 2)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됨(마24:14; 마13:10; 롬11:25)
- 3) 온 이스라엘의 구원(롬11:25-29) :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의미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 4) 배교와 대환란(마24:12; 살후2:3; 딤후3:1-7; 4:3)
*마24: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살후2:3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고.”
*딤후3:1-7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5)적그리스도의 출현(살후2:3-4)

6)표적과 기사(마24:29-30;막13:24-25;눅21:25-26) : 지진 전쟁 기근 등

5.그리스도의 재림

1)재림의 시기 : 재림은 임박했고 징조는 있으나 그 시와 때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마24:36).

2)재림의 방식 : 육신적인 재림(마24:30; 26:64; 행1:11), 갑작스런 재림(마24:37-44; 25:1-12; 살전5:2), 영광과 승리의 재림(마24:30;살후1:7;살전4:16;살전3:13;살후1:10)

3)재림의 목적 : 부활과 최후 심판을 위해 재림하신다(요5:25-29;행17:31;롬2:3-16;빌3:20-21).

제16장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말한다(마24:30;25:19;26:64;요14:3;행1:11;빌3:20;살전4:15;살후1:7;딤후2:13)

1. 재림의 징조들

1)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됨(마24:14;마13:10;롬11:25)

2) 온 이스라엘의 구원(롬11:25-29) :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의미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3) 배교와 대환란(마24:12;살후2:3;딤후3:1-7;4:3)

*마24: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살후2:3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고.”

*딤후3:1-7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4) 적그리스도의 출현(살후2:3-4)

5) 표적과 기사(마24:29-30;막13:24-25;눅21:25-26) : 지진 전쟁 기근 등

2. 그리스도의 재림

1) 재림의 시기 : 재림은 임박했고 징조는 있으나 그 시와 때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마24:36).

2) 재림의 방식 : 육신적인 재림(마24:30; 26:64; 행1:11), 갑작스런 재림(마24:37-44; 25:1-12; 살전5:2), 영광과 승리의 재림(마24:30;살후1:7;살전4:16;살전3:13;살후1:10)

3) 재림의 목적 : 부활과 최후 심판을 위해 재림하신다(요5:25-29;행17:31;롬2:3-16;빌3:20-21).

3. 천년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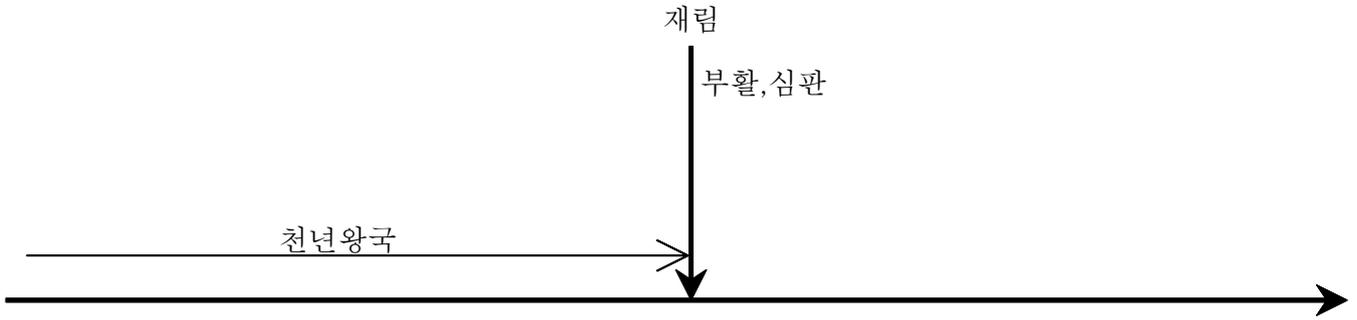
1) 후천년설(천년후 재림설) :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러나 재림의 징조 중에 배교와 환난이 있는 후에 재림한다는 성경의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다.

2) 전천년설(천년전 재림설) :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다윗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천년을 왕노릇한다. 계20:1-6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진다고 하나, 성경은 영적이고 우주적인 왕국은 이미 존재한다고 한다(마11:12;12:28;눅17:21;딤후4:18;벧후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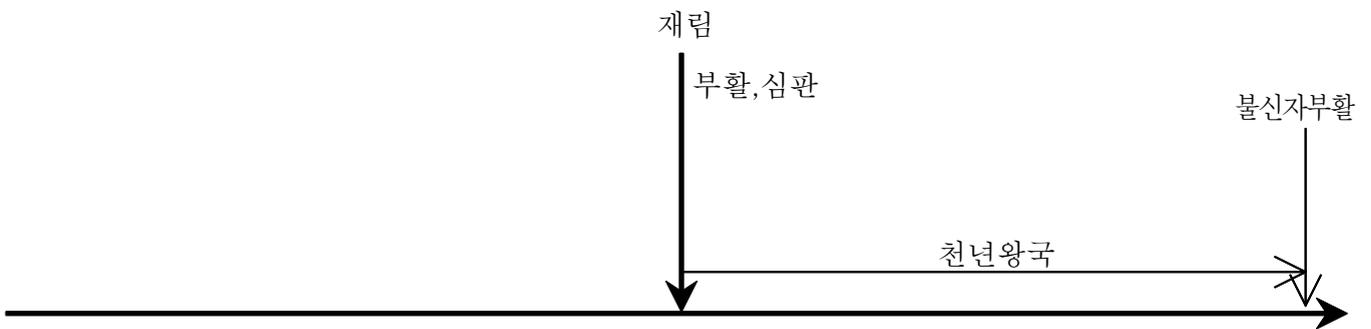
3)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 7년 대환난 전에 휴거한다. 휴거와 재림을 별개로 보나(마24:36-42), 성경은 동시 사건이라고 한다(살전4:15-18;고전15:51-52)).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한걸음 더 나가면 시한부 종말론이 될 수 있다.

4) 무천년설 : 특별한 천년왕국은 없다. 재림과 초림 사이의 기간이 천년이다. 영적인 해석으로 치우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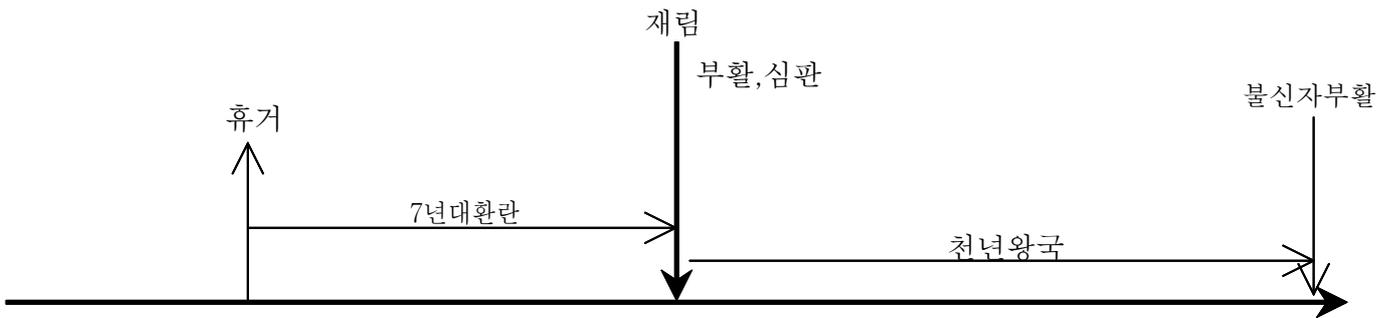
▶ 후천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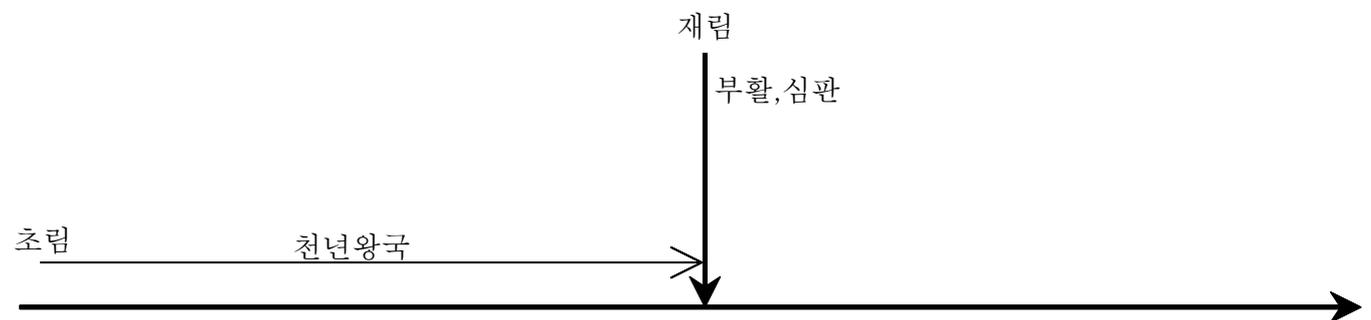
▶ 전천년설



▶ 세대주의 천년설



▶ 무천년설



제17장 부활과 마지막 심판과 최후의 상태

1. 부활

- 1)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말한다(사26:19; 단12:2; 요5:25; 고전15; 살전4:13-17; 계20:13)
- 2) 부활의 성격 : 육체적인 부활이다(롬8:23; 고전6:13-20). 악한 자와 의로운 자의 부활이다. 악한 자에게는 영과 육이 재결합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벌을 받는 심판을, 의로운 자에게는 구원을 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3) 부활의 시기 : 부활과 세상의 끝인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치한다. 부활하고 즉시로 최후의 심판이 있다(요5:27-29; 고전15:23; 빌3:20; 계20:11-15). 천천년설자들은 천년을 사이에 두고 의로운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나중에 악한 자들이 부활한다고 하나(단12:2; 요5:28; 행24:15) 그리스도의 재림과 악한 자의 부활은 동시적이다(요6:39; 11:24).

2. 마지막 심판

- 1) 성경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한다(시96:13; 전3:17; 마25:31-46; 고후5:10; 딤후4:1; 계20:11-14).
- 2) 심판관 : 증보자이신 그리스도가 대속의 사역에 대한 공로로 심판관이 되신다(요5:27; 행10:42; 빌2:10; 딤후4:10). 천사가 심판을 도울 것이며(마13:41), 성도들도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고전6:2; 계20:4).
- 3) 심판받을 자 : 모든 개개인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전12:14; 마12:36; 롬14:10; 고후5:10; 계20:12). 악마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마8:29; 고전6:3; 벰후2:4). 의로운 자도 심판을 받는다(마13:30; 40-43; 고후5:10).
- 4) 심판의 시기 : 마지막 심판은 세상 끝날, 죽은 자가 부활한 즉시에 있다(계20:12-13; 요5:28-29). 심판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다만 “심판의 날”이라고 한다. 천천년설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년이나 혹은 하루 24시간은 아니다.
- 5) 심판의 기준 : 이방인은 자연법으로, 유대인은 구약의 계시로,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는 복음의 계시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롬2:12).

3. 최후의 상태

- 1) 악한 자들은 지옥에(hell) 들어간다. 성경은 지옥을 단순한 상태가 아닌 장소, 불타는 곳이나 감옥으로 말한다(마13:42; 계20:14; 벰전3:19).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고 끝없는 괴로움과 양심의 찢림이나 번뇌와 낙심 등의 영육이 함께 적극적인 고통을 겪는다(마8:12; 막9:4; 눅16:23; 계14:10). 형벌에도 차등이 있으며(마11:22; 눅12:47-48; 20:47), 그 형벌은 영원하다(눅16:26; 막9:23).
- 2) 믿은 자들은 현재의 세상이 지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새로운 세상은 전혀 새로운 창조가 아니고 현재의 세상이 갱신되는 것이다(시102:26-27; 히12:26-28). 하늘은(Heaven)신자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다. 하늘은 상태가 아닌 처소이다(마22:12-13; 25:10-12). 신자들은 하늘 뿐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상속할 것이다(계21:1-3). 의로운 자들이 받을 상급은 영생이다. 영생은 끝없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것이다. 현재의 모든 불완전이나 결함이 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넘치는 삶을 말한다. 하늘의 즐거움도 차등하다(단12:3; 고후9:6).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 심판

